



◇철보사가 건립한 아산 보문복지원이 10일 준공됐다.



◇불교 유료 양로시설인 양양 보리수마을 개관식이 12일 열렸다.

실버타운 보문복지원 · 보리수마을 개관

“노인복지로 아름다운 황혼”

다 규모 유료양로시설인 아산 보문복지원과 양양 보리수 마을이 10일과 12일 잇따라 준공돼 노인복지포교를 받게 하고 있다. 보리수마을(이사장 명신스님)은 4년여에 걸쳐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노인종합복지 유료주택단지인 보리수빌딩과 함께 개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청하(통도사 부방장) 법흥(원효종 종정) 스님을 비롯 최각규 강원도지사 송훈석의원 오인택 양양군수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했다.

보리수 마을은 2만1천여평부지에 건평 6천9백평이며 3백60세대의 주거동 5동, 사무실 1개동, 팔각정 1개동이 건립됐고 현재 1백3세대가 입주했으며 2백70세대가 계약한 상태다. 특히 보리수빌딩은 의사 2명등 총 13명의 의료진을 갖추고 입주자들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순회이동서비스를 운영하여 양양강릉 속초 등 인근지역의 노인과

불자들에게도 무료진료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 철보사(주지 오원)가 건립한 아산 보문복지원도 10일 석주(철보사조실) 관음(지지사 조실) 운경(봉선사 조실) 벽암(신원사 조실) 원담(수덕사 방장) 고승(파계사 조실) 청하(통도사 부방장) 법흥(원효종 종정)스님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96년 3월 기공하여 이날 준공된 보문복지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5백50평으로 31개의 방사가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복지자를 대상으로 98년 1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복지원은 입주자들의 건강을 위해 인근 아산지단 아산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입주자 사망시 모든 장례절차는 물론

49세 기제사까지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리수마을은 경기도 광주에 제2의 보리수마을을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양양=김원우·아산=김준근 기자>

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이 강원도 횡성 20여만평에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서두르는 것과 관련 안흥면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발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종합복지타운이 들어설 횡성군 안흥면 주민들은 승가원이 땅소유자와 부지를 계약하며 통보가 없었고, 고령지 채소농지가 유실되며 상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또 마을이 낙후되고 땅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것

PD수첩 불교위상 실추 조계종, MBC 사과요구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4일 MBC TV가 PD수첩 3백회 특집으로 석용산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과 관련 문화방송측에 공문을 보내 유감을 표하고 사과방송을 요구했다. 총무원 홍보부는 최근 문화방송에 '석용산관련 PD수첩에 관한 건' 제하의 공문을 통해 종단차원에서 공덕원측 사람들이 가차

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이 강원도 횡성 20여만평에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서두르는 것과 관련 안흥면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발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종합복지타운이 들어설 횡성군 안흥면 주민들은 승가원이 땅소유자와 부지를 계약하며 통보가 없었고, 고령지 채소농지가 유실되며 상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또 마을이 낙후되고 땅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것

횡성승가원 건립 '주민반대'

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이 강원도 횡성 20여만평에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서두르는 것과 관련 안흥면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발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종합복지타운이 들어설 횡성군 안흥면 주민들은 승가원이 땅소유자와 부지를 계약하며 통보가 없었고, 고령지 채소농지가 유실되며 상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또 마을이 낙후되고 땅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것

조계종 전법 지도자대회

추진 실무단 구성...12월9일 3백여명 참석

조계종총무원장은 '민족문화 수호와 전법을 위한 조계종 지도자대회'를 12월 9~10일 종단내 중진급 스님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기로 하고 3일 지도자회의 추진실무단(단장 지현 총무국장)을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족문화 수호에 관한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불교계의 요구사항을 담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지도자회의는 지난달 말 월주스님이 대규모 전법대회를 준비하라는 지시에 따라 준비되고 있으나,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행위를 봉행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으며, 일회성 행사로 전법의지를 확산시키려는 데 대한 반대여론이 많다는 이유로 축소됐다.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주 중이나 대회의 명칭 및 행사목적 등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 오후4시 대구 프린스호텔 별관 가야넷홀에서 회합을 갖고 국립공립입장료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교구본사별로 시행중인 현수막설치 및 서명작업과 병행해 전단지들을 만들어 배포기로 결의했다.

모임은 또 대선후보 등록이 끝나는데도 후보들의 불교정책 및 공약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거나 대선후보초청 교계언론합동 토론회를 개최기로 하고 이의 시행여부를 오는 18일 수석사 모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은 참여율이 저조한 현 중회의의 과반성을 비판한 뒤 98년 하반기에 이뤄질 중회의와 집행부의 개편에 대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현해(월정사) 해광(법주사) 철용(마곡사) 법장(수덕사) 천운(대운사) 무공(동화사) 법타(은혜사) 설조(불국사) 법조(고운사) 지선(백양사) 종영(화엄사) 중원(제주 관음사) 스님 등 12개 교구본사주지스님이 참석했다.

'입장료폐지' 재확인 조계종 본사주지모임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모임(위원장 설조)은 11월11

'서준식씨 석방요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해공스님)는 13일 영화(레드헌트) 상영으로 구속된 인권운동가 서준식씨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원회는 "영화(레드헌트)는 부산 국제영화제에 상영된 작품으로 공론의 심의를 통과한 영화임에도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이라며 때로, 서씨를 구속한 것은 명백한 인권탄압의 사례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문화적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 인권위원회는 △서준식씨의 조속한 석방 △근거없는 반인륜적 인권탄압 중지 △대선에 앞선 공안정국 조성음모 경계 △인권권을 침해하는 사상사비 반대 등을 천명했다.

뉴스 & 뉴스

유한킴벌리 부당거래 접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장 효강정사)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한킴벌리에 납품하다 유한킴벌리측의 계약위반으로 부도를 맞은 삼우화학(대표 배호성)으로부터 불공정거래에 관한 피해 진정서를 접수하고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독실한 불자인 배호성씨는 89년 창업이후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94년 경제기획원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건설계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10월 부도를 맞았다. 이에 소비자보호위는 "삼우화학의 피해보상을 위해 유한킴벌리 제품불매운동과 본사 향의방문 등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외교포어린이 심장병시술

감로심장회(이사장 보안스님)는 6일 중국의 병원에서 '심장결로우사중'으로 치료불가능 관정을 받은 교포 최희영어린이를 초청하여 경상대 병원 흉부과에서 약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실시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최희영어린이는 감로심장회가 동체대비사상과 동포애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교포까지 심장병시술을 확대한 첫번째 복지자이다. 이에 앞서 감로심장회는 5일 경상대 심혈관연구소에 연구비 3백만 원을 전달했다.

교리문답 우수상에 연등사

부산불교고등학교생연합회(총재 성우)는 9일 통도사부산포교원에서 창립25주년 기념대회와 제20회 독경대회 및 교리문답대회를 가졌다. 성우스님을 비롯 20여지부 5백여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각 지부의 독경과 교리문답 경연을 벌여 교리문답대회에서는 연등지부(연등사)가 최우수상을 정수지부(정수사)가 우수상을 차지했으며 독경대회에서는 정수지부(지도교사 김원수)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한해의 활동을 평가해 가장 내실있는 활동을 펼친 지부에 주어지는 최우수 활동지부상에는 해동고등학교가 수상했다.

10일 오전 10시 40분 총무원 청사층 불교회관. 종회의장 설정스님이 빈자리 투성이인 종회의석을 굽어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종회를 할때마다 허탈감을 느낀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종회의원들로 인해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종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번 종회는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종회의에도 다시 성원 미달이라는 부끄러운 현상이 벌어지다니..."

지난 3월 127회에 이어 지난 9월 128회 임시종회가 성원미달로 자동유회된데 이어 다시 정기종양종회가 회기 기간중 성원 미달로 한나절을 '공

치는' 현실에서 의장스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야말로 한두번이 아닌 성원미달, 그로인한 유회. 이때마다 의석 여기저기서 들려 오는 '종회 해산론'과 '종회 무용론', 개혁회의 직후 밤 깊어 가

‘종회해산 건의서’

는 줄 모르고 열린 토론을 벌이며 입법활동을 하던 종회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개혁정신의 퇴색을 반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10일 성원 미달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의원스님은 '제11대

종회 해산 건의서'를 만들어 의원스님 3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정원 80명에 41명의 과반수 성원이 안되어 유효회기를 딱딱듯 하는 종회. 간신히 성원되어 속개된 회의에서 10명 이내의 의원들이 발언권의 7할 이상을 장악하는 종회. 비구니 의원스님들은 시종 한마디의 발언도 않고 외곽에 손만 들어 주는 종회. 의원 스스로 해산을 말하는 종회. 과연 이러한 종회는 1천 6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조계종의 무엇이란 말인가. 묻고 싶다. "조계종 종회 뭐하는 곳입니까?"

임연태 기자

남들의 시선을 많이 끄는 직업상의 어려움때문에도 불자연예인들은 눈치(?)안보고 법도 보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연예인 법당을 갖고자 오래 전부터 간절히 원해왔다. 간절히 속원을 풀 듯 드디어 11일 본 각사에서 연예인법당 상량식이 거행됐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 보면 이를 단순히 축하해줄 수만은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95년 9월 발족한 대한불자예술인연합회는 법당건립 기금마련을 위해 도자기와 옥성구(옥류주·호신불)판매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일부연예인들이 원가 4만7백원인

도자기를 사찰을 돌며 28만원에 팔기 시작한 것이다. 책정된 판매가의 대부분은 전국의 사찰을 다니며 5~10명으로 구성된 연예인을 포함한 판매팀의 인건비로 총당됐다. 연예인들 중엔 타 종교인도 있었는데 이들에게 일당 50

연예인 법당기금 '잠음'

~60만원의 아르바이트(?)를 제공했다. 거기다 옥성구 10세트를 판매하면 6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교활동 합의서'까지 마련할 정도로 판매에 열중했는데 연합회 대표는 옥성구 등의 판매와 관련한 총매출액과 수입은 알 수 없다고 말해 의혹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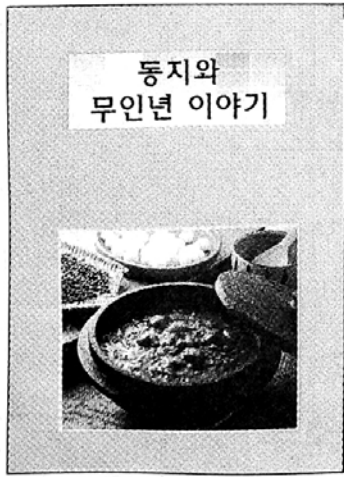
고 있다. 또 이들을 본파 옥성구·도자기·관음상 시계 등을 판매하는 유사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불자들의 피해사태가 점점 늘어났다.

불자연예인들은 이렇게 문제성 있는 '장사' 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재능을 살린 예술공연을 준비해 도음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어떨까. 일부 연예인들의 물자각한 행태때문에 전체 불자연예인들이 욕을 먹어 서는 안일 것이다. 더구나 부처님을 모시고 신행활동을 떠나가는 법당건립 기금마련사업이 불자들의 피해와 향의를 부른다는 것이 될 말인가.

김지연 기자



동지 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책 동지와 무인년 이야기



동지와 무인년 이야기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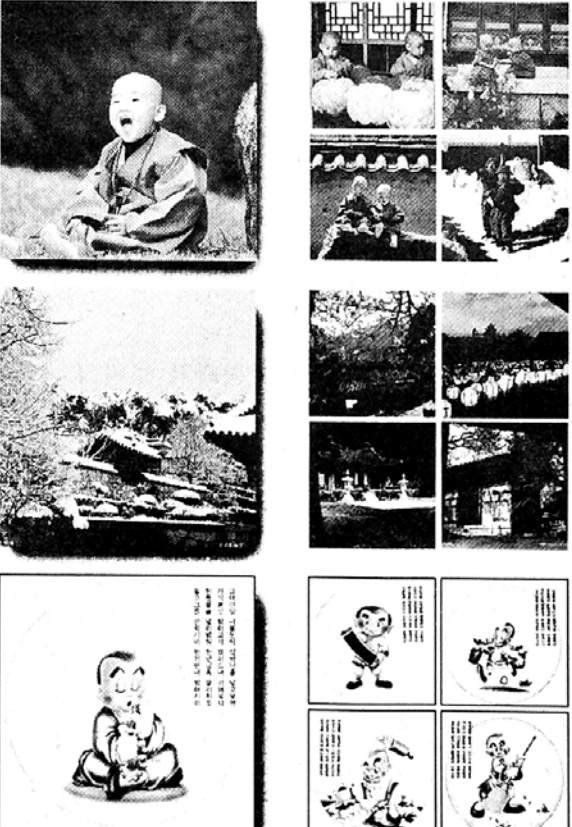
성도절 이야기

신국판 64페이지, 정가 1,500원
성도절 법회 법보시책으로 좋습니다.

동지 법어, 팔죽의 유래, 팔죽과 관련된 풍습, 동지와 불교, 동지에 얽힌 불교 설화, 호랑이 해에 생각하는 호랑이 이야기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동지 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수 · 록 · 내 · 용
- 제1부 동지맞이 기원법회
동지 법어/동지 맞이 발원문
 - 제2부 우리의 민속 명절, 동지
팔죽의 유래/팔죽과 관련된 풍습/동지와 농경(農占)/동지의 시절 음식 불교에서 본 동지의 유래/새롭게 보는 동지/선덕여왕과 지귀/팔죽과 나한님
 - 제3부 민속과 불교
문화와 민속 문화/민속 불교/삿빔을 막아주는 색/신성한 색
 - 제4부 아세(亞細-동지)를 맞아 생각하는 무인년 새해
10간 12지로 나누어 본 무상한 세월 이야기
호랑이 이야기/불교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 이야기
-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맨 뒷장에 법보시책 및 법회안내 등을 넣어드립니다.
◆ 크기/4x6배판, 표지포함 52페이지 * 법보시 특가/1권당 1,500원

불기 2542(무인년) 달력 보급 안내



365일 밖에 걸린 달력은 불교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2년도 달력 '산사의 향기(大·小)-사진 안장현', '동자승(大·小)', '나한도(小)'를 주문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단세로 주문하실 경우에는 사찰명, 그리고 법회안내 및 주소, 전화번호를 인쇄하여 드립니다.

■ 크기 : 小(26x26.5cm) 大(30x31cm)
■ 매수 : 표지 포함 13매
■ 특수고급제본
* 견본이 필요하신 사찰은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감로기획

서울·종로구 수송동 13번지
☎723-4306~7 FAX: 738-8682 (야간) 011-265-0923